



[산업]
현대차 '신형 쏘나타'
12개 스피커
보스 사운드 탑재
06



Economy

코스피	2138.10 (+0.66)	코스닥	739.09 (+3.12)
금리 (연고채 3년)	1.81 (+0.01)	환율 (USD-달러)	1133.70 (-2.50) (11일)

주총시즌 개막... 행동주의 맞서 “소통·혁신·책임경영”

이번주 15일부터 본격 개최 삼성, 소액주주 주권 보장 LG·SK, CEO-이사회 분리 현대차, 정의선 대표이사 선임



현대차그룹

국내 기업들이 올해 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쇄신'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

11일 세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포스코와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주총이 시작된다.

올해 주총은 기업마다 쇄신을 통한 혁신과 투명 경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과 기업 경영진의 방어전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주총을 개최하고 소액주주의 주권 보장에 집중한다. 지난해 5월 주식을 액면분할한 이후 열리는 첫 주총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총 일정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3월 마지막 주의 전주 금

요일에 주총을 열어왔지만 올해는 주총이 몰리는 금요일을 피해 수요일로 날짜를 잡았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김한조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새 사외이사로 추천한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총 안건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임기 만료 전 임시 주총을 열어 재선임 여부를 다룰 것

<주요 기업 주총 일정>

날짜	기업
15일	LG전자, LG화학, 포스코, 기아차, 신세계, 효성 등 99개사
20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27개사
21일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등 102개사
22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 313개사
25일	SK케미칼 등 138개사
26일	LG,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등 207개사
27일	대한항공, 한진, SK, 신한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 한화 등 239개사
28일	에스오일 등 120개사
29일	아시아나항공, 엔씨소프트 등 307개사

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이른 15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정관 개정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LG전자는 구본준 LG 부회장이 맡았던 기타 비상무이사직에 권영수 LG 부회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는 구광모 체제가 들어선 뒤 구 부회장이 작년 말 공식 퇴진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 부회장은 구 부회장과 하현희 부회장이 맡았던 주력 계열사 중 일부에서 이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정도현 사내이사 와 김대형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감사위원으로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 학대학원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기존 김대형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로써 총 7명인 LG전자의 이사회는 조성진·정

도현 사내이사 와 권영수 기타 비상무이사, 김대형·백용호·이상구·최준근 사외이사 체제가 될 예정이다.

SK그룹 지주사인 SK(株)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회가 이사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정관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기존 SK(株) 정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분리해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최대원 SK그룹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SK(株)이사회 의장 직에서 물러난다.

현대차는 오는 22일 서초구 양재동 본사 서관 2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현대차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뒤, 이후 열리는 별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모비스도 같은 절차를 밟아 정 수석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는 오는 15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재 '비상무이사'인 정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오른 지난해 말에 핵심 계열사의 이사회 주요 직책을 모두 맡아 '책임 경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주총은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시대'를 대외에 천명하는 자리인 셈이다.

포스코는 이사회를 대거 교체하며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 포스코는 오는 15일 주총에서 장인화 철강부문장과 정중선 전략기획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택 마케팅본부장을 신규 선임할 방침이다. 기존 사내이사였던 오인환 사장과 유성 부사장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포스코 사내이사진은 지난해에 이어 5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취임과 함께 100대 개혁과제로 내걸었던 '현장 밀착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재판 마친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공채, 기업들 어떻게 뽑나 서류, 인턴 등 실무경험 면접, 직무수행능력 중시

사람인, 기업 255개사 설문

삼성그룹 등 올해 상반기 공채 시즌의 막이 오른 가운데, 공채 전형별 평가요소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인턴 등 실무경험이 면접

에서 직무수행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11일 사람이인 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전형별 평가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2.3단계 전형을 거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전형' (87.5%, 복수응답)과 '서류전형' (76.5%)을 진행했고, '인적성검사' (8.6%), '신체검사' (3.9%), '필기시험' (3.5%)을 실시하는 기업도 있었다.

각 전형별 평가비중을 보면, '면접전형' (54.5%·실무면접 31.7%, 인성면접 22.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서류전형' (34.5%), '인적성전형' (8.4%), '필기전형' (2.6%) 순이었다. 면접전형은 평균 1.8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입하고 있는 면접유형(복수응답)은 '필의응답면접' (94.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무수행

면접' (11.8%), '영어 등 외국어면접' (4.3%), 'PT면접' (3.5%), '토론면접' (3.1%)을 시행하는 기업도 있었다.

면접형태(복수응답)는 '일대일 면접' (51.8%)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면접관과 1명의 지원자가 치르는 '대대일 면접' (25.1%), '일대다 면접' (18.8%), '다대다 면접' (11%) 순이었다.

각 전형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서류전형에서는 '인턴 등 실무경험' (48.6%)이었고, 이어 '전공' (20%), '자격증' (8.6%), '대외활동 경험' (7.1%), '나이' (3.1%), '학력' (2.7%), '교육 이수 내역' (1.6%), '어학성적' (1.2%) 등의 순이었다.

면접에서도 '직무수행능력' (43.9%)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혀 직무역량이 취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성실성과 책임감' (27.5%), '입사 의지 및 열정' (14.9%), '조직 융화력' (3.9%), '커뮤니케이션 능력' (2.7%), '가치관 및 성향' (2.4%), '실행력 및 도전정신' (2%) 등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먹거리가격 도미노 인상... 빵·고추장도 오른다

인건비 등 지속 상승 영향 정부, 가격안정방안 추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먹거리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햄버거나 커피 등 외식물가에 이어 3월 들어서는 아이스크림, 빵, 고추장·된장의 가격이 올랐거나 인상 계획을 전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원부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물가 오름폭이 크다고 보고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뚜루는



SPC그룹 우유식빵(위)과 청정원 순창태양초 찰고추장

지난 1일부터 유통점 및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디저트 총 20종의 가격을 평균 12.1% 인상했다. 유통점에 판매되는 나뚜

루 완제품은 평균 10.9%,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 17종은 평균 17.6% 각각 올랐다. 또한 편의점 전용 월드론, 설레임은 4월 1일부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된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도 지난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 파리바게뜨가 취급하는 총 833개 품목 중 73개 품목으로, 평균 인상폭은 5.0%다. 세부 항목으로는 빵류 42품목 (6.2%), 케이크류 20품목 (4.6%), 샌드위치류 5품목 (9.0%), 선물류 6품목 (5.2%) 등이다.

대상도 최근 4월부터 고추장과

된장, 감치미, 맛소금, 액젓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평균 인상률은 6~9%대 수준이다. 고추장은 평균 7.1%, 된장은 평균 6.1% 각각 오른다. 감치미도 평균 9% 인상된다.

대상에 따르면 고추장의 주요 원재료인 현미는 2015년 kg당 1170원에서 2019년 kg당 1370원으로 17% 이상 올랐다. 건조추 또한 2015년 600g당 5506원에서 2019년 (1~2월 평균) 600g당 8750원으로 60% 가까이 상승했다.

이처럼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